2024 어린이 책의 해 "책, 친구가 되어줘!"

1. 취지문

어린이가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게.

어린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어린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2024 어린이 책의 해 추진단은 우리 어린이에게 책 친구를 만들어주자고 외칩니다. 2024 어린이 책의 해 슬로건은 '책, 친구가 되어줘'입니다. 이 말은 어린이가 책에게 친구가 되자고 청하는 말이자, 우리 어린이가 이 사회에 책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스스로 책을 골라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 땅에서 자라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책을 친구로 삼아 함께 살아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독서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어린이를 위해 책을 만드는 작가와 출판사, 어린이에게 책을 전하는 도서관과 서점, 어린이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주고 책읽기를 가르쳐주는 부모와 양육자, 교사와 사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책 읽는 문화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나갑시다.

이 땅의 선각자들이 '어린이날'을 정한 지 백 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은 다시 백 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선각자들은 "어른이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정신이 2024어린이 책의 해를 추진하는 밑바탕입니다. 2024 어린이 책의 해 추진단은 어린 싹이 책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서 뿌리를 튼실하게 내리고, 가지를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자고 말씀드립니다. 이 뜻에함께하실 분들은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2. 2024 어린이 책의 해에 펼치고자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Ι.

(1) 어린이가 스스로 어린이책을 선택하고 권하는 사업

책 읽는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책 읽는 어른(독서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즐거운 책 읽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책읽기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독서문화를 만들어가 고자 합니다.

(2) 어린이 책 작가와 편집자와 출판사가 함께하는 사업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책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작가는 어떤 분입니까? 어린이가 직접 책을 골라서 읽고 작가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전국의 학교와 도서관, 서점과 아동센터 등에서 어린이와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3) 매월 첫 번째 주말은 어린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는 날, 서점에 가는 날 캠페인

어린이 여러분, 언니와 형,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본 적이 있나요? 매월 첫 번째 주말은 모두 함께 도서관에 가는 날, 서점에 가는 날로 정하여 어린이가 책 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4) 어린이의 손에 책을 전하는 사업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자기 책이 한 권도 없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에게는 어떻게든 자기 책을 한 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를 겪으며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도 책 읽기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즐겁고 만나고 행복하게 읽을 수 있는 독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Π.

(5) 어린이 책 생태계 포럼

우리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기가 책을 즐겨 읽는 아이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진 부모와 양육자와 교사와 사서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어린이와 책, 어린이와 독서, 어린이와 도서관 및 서점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차별, 아동빈곤, 아동안전, 장애아동 등 어린이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가돌봄의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자 다음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어린이를 둘러싼 여러 사회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어린이 독서환경 및 독서실태 조사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어린이의 독서환경 및 독서실태, 그리고 양육자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독서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린이를 둘러싼 독서환경 및 독서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향후 어린이를 위한 독서정책 수립과 어린이 독서 관련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의 독서환경 및 독서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과연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피고 활동하겠습니다.

(7) 어린이책과 관련한 각종 전시 사업

지난 100년간의 한국동화를 돌아보고, 좋은 동화를 골라서, 도서관, 아동센터, 서점 등 어린이 관련 기관에서 순회 전시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하며 책읽기의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II.

(8)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언론기관 등과 함께하는 사업

'어린이에게 책과 사랑과 희망을 주자'는 뜻에 함께하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언론기관, 기업과 각종 단체 등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책 읽기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2024 어린이 책의 해 추진단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책과 더 즐겁게 만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9) 어린이 독서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 활동

어린이 독서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포스터(2023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엄청난 눈』 『애들아 놀자』의 작품을 펴낸 박현민 작가 디자인)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스터를 전국의 학교와 도서관과 서점 등에 배포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책과 어린이의 독서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누리집(홈페이지)도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어린이 책과 어린이의 독서문화의소중함을 더욱 널리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10) 어린이 책과 어린이 책읽기를 위한 법 제도 개선과 네트워크 구축

전 세계 어린이와 책, 어린이와 리터러시, 어린이와 도서관 및 서점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활동하는 기구, 기관, 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사업을 펼쳐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UN이 새롭게 '책의 해' '어린이 책의 해'를 지정하고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독서문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독서문화활동진흥법 제정 제안 등) 어린이 책과 어린이 책읽기를 위해 힘써온 여러 기관과 단체와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린이 책과 어린이 책읽기를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IV.

2024년은 어린이 책의 해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책의 만남은 한 해 노력한다고 해서 큰 성과를 거둘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거둔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새롭게 도출된 과제를 풀어나가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어린이 책 문화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활동해온 단체와 기관, 그리고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단체와 기관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2024년은 어린이 책의 해입니다. 책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 주세요.

"책. 친구가 되어줘!"

고맙습니다. 2024 어린이 책의 해 추진단